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 활동부진 공동체 등록 취소 ... 퇴출제 시행

최근 2년간 500점 미만 공동체 중  
개선 의지 없는 공동체 우선 퇴출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의 등록이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진공동체 퇴출제 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평가점수가 500점 미만인 공동체 중 개선 의지가 없는 공동체를 우선 퇴출대상 공동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퇴출대상 공동체 선정과정에서 이들 공동체에 소명 기회를 주고, 최종 퇴출공동체를 확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키로 했다. 올해 첫 퇴출공동체는 9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2년 연속 평가점수가 300점 미만인 공동체 중 올해 퇴

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진공동체는 맞춤형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되, 컨설팅을 통한 교육거부 및 불성실한 공동체의 경우 차년도 부진공동체 퇴출 대상에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퇴출 유예 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은 4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활동부진 공동체에 대한 퇴출제 시행은 자율관리공동체의 정체성 회복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해수부에서 마련한 부진공동체 퇴출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 2018년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대의원총회 개최



2018년 자율관리어업 대의원총회가 3월 27일 대전에서 열려 지난해 사업결산 및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연합회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3월 27일 대전 아드리아호텔 2층(사파이어홀)에서 2018년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김호연 연합회 회장 및 전국의 대의원을 비롯, 연합회 이사진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결산 보고 및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연합회 회비징수 및 회원관리 등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지난해 권역별 12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하는 성공사례교육을 추진해 자율관리 활성화 화를 도모했다.

대의원총회는 각 광역연합회 소속의 시군 연합회장들로 구성된 연합회의 의결기구이다.

### 자율관리공동체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

#### 81개 내수면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2018년 자율관리어업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  
2018. 3. 7(수) 09:30~12:0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층 회의실)

한국수산업회는 3월 7일 KTX 서울역 회의실에서 자율관리어업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11월 말 기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81개 내수면공동체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내수면공동체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비롯, 내수면평가협의체 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평가위원들은 내수면평가협의체 운영과 관련, 공동체 활동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향후에는 협의체 평가점수 상위 10~20% 이내 공동체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본 평가를 실시하기 전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추후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 일부 내수면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 제2차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 개최

#### 해수부 "수산자원회복 종합대책 8월까지 마련"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3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수협중앙회, 어업인·소비자·NGO 단체, 학계, 유통업계, 수산자원관리공단,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분야별 워킹그룹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연근해어획량 감소에 따른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오는 8월까지 민관 합동 작업을 통해 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수산자원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러한 민관합동 작업을 토대로 △총어획허용량제도(TAC) 강화 △휴어제 도입 △세목망제도개선 △어선감척 △금지체장 및 금어기 강화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자율관리어업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  
www.jayul.go.kr



##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뒤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 자원조성 활동



채포제장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 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10월 1~2일, 여수 엑스포광장에서 개최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업인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0월 1~2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전남 여수시 엑스포광장에서 개최된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자율관

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어업인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주요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14번째를 맞고 있다. 2016년 13회 전국대회 개최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는 자율관리어업 최대의 행사이다.

### 충북도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실시 충북 관내 150여 공동체 어업인 참여



2월 27일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열린 충북 북부권 교육모습.

충북도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이 2월 27~28일 양일간 충북 관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업인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공동체 어업인의 교육편의를 위해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뉘어 27일과 28일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충주 소재)와 충북 남부내수면지원과(옥천 소



2월 28일 남부내수면지원과에서 열린 충북 남부권 교육모습.

재) 교육장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사업추진 방향을 비롯, 사례 위주의 일지 작성 요령 및 평가항목별 점수 확보방안 등 일선 공동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 고창·사천에서 자율관리어업 정책교육



전북 고창지역 공동체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 정책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경남 사천과 전북 고창에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정책교육이 열렸다.

고창지역 공동체 어업인은 3월 16일 전북수산물기술사업소에서, 사천지역 공동체 어업인은 3월 19일 경남수산물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에서 각각 자율관리어업 정책교육을 받았다.

이들 교육에는 한국수산물 양문주 자율관리팀 부장 등이 강사로 나서 자율관리 사업추진 방향 및 성공 사례 등을 소개했다.

### 화성 백미리 자율관리공동체 '밥도둑 연어장' 상품화 성공



경기 화성시 백미리 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법인이 별다른 조리없이 간단하게 연어를 즐길 수 있는 '밥도둑 연어장' 상품화에 성공했다.

이번 상품화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화성시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조성된 수산물 가공시설을 통해 이뤄졌다.

'밥도둑 연어장'은 바쁜 일상에서 손질없이 신선하게 수산식품을 즐길 수 있도록 1회용 소포장 형태로 최근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출시됐다.

한편 지난 3월 5일 화성시청 구내식당에서 밥도둑 연어장을 알리는 시식 및 품평회가 열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 화성시 백미리 공동체가 최근 별다른 조리없이 간단하게 연어를 즐길 수 있는 '밥도둑 연어장'을 상품화해 3월 5일 화성시청 구내식당에서 '밥도둑 연어장'을 알리는 시식 및 품평회를 가졌다.

### 수산자원관리공단, 어업인과 '맞손' 완도·제주어업인들과 수산자원조성 업무협약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제주어업인 단체들이 3월 9일 수산자원조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산자원을 위해 어업인들과 마음을 모았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3월 8일 9개 어촌계로 구성된 전남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운영위원회, 완도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전북산업연합회와 바지락 및 꼬막 산란장 조성, 해삼 방류 등 소득연계형 수산자원조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9일에는 제주 한림수협, (사)제주도 어촌계장연합회, (사)제주도 해녀협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제주연합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수산자원증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산자원공단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전남 완도군 군외면 1,000ha 해역에 바지락, 해삼, 꼬막 산란장을 조성하고, 어린 종자를 살포해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등 갯벌형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제주시 오봉리, 종달리, 서귀포시 삼달리와 신천리 등 6개소에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숲을 신규 조성하고 서귀포 가파도 해역에 5년간 50억원을 투입해 바다목장 1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 자율관리어업연합회 3월 이사회 개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3월 5~6일 충북 청주시 오송연합회 사무실에서 김호연 연합회장을 비롯 10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진공동체 활성화 및 성공사

례 현장 전수교육 등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 총회 및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행사일정 등에 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부진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도 연합회장이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독려하는 한편 지역담당 컨설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공동체의 반응이 좋은 성공사례 전수교육은 올해 총 20회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 경남 고성군, 해안변 대대적 환경정비

경남 고성군은 3월 24일 삼산면 두포리 포교항 인근 해안에서 바다 대청소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율관리어업고성군연합회와 두포자율관리공동체, 고성수협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해 연안변 침적 쓰레기와 해안변 폐부자,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 총 16톤을 수거했다.



산지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http://www.fishsale.co.kr)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물회 가 도와드립니다.

특별기고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위해 효율적인 교육방안 모색 필요’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지난해 13개소가 신규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1,170여개소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등록된 공동체 중 자율관리어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활발히 참여하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공동체도 많다. 다시 말해 많은 공동체들이 등록만 돼 있을 뿐, 실제로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이른바 유명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면 부실공동체로 지목되고 있는 이들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자율관리어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수공동체와 부진공동체의 1대1 컨설팅

정부에서는 부진공동체의 활성화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위해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점수 300점 미만 공동체 중 미퇴출

대상공동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컨설팅은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전달 위주로 이뤄지는 경향이 많다. 이로 인해 각자 여건이 다른 개별 어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어업인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문적인 컨설팅 이외에 실제 어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우수공동체에 맡겨 직접 추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1회성 벤치마킹 형식이 아닌,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우수공동체와 부진공동체를 1대1 관리대상으로 묶어 밀착교육을 진행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하게 한 후 부진공동체가 활성화



**권영환**  
양양 수산공동체 위원장  
(강원도연합회장)

화될 경우 우수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시·군 및 도 단위 교육담당 전문인력 배치

또한 지금 우리 어촌사회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된 상태이므로 자율관리어업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일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자율관리어업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활동일지 작성이 어려워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목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 및 도 단위로 활동일지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

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자율관리어업과 관련이 있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각 공동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같은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또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바다를 지키고 바다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이다.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자율적 참여를 위한 적절한 동기를 부여한다면 자율관리어업의 선진화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해수부, 남대천에 어린 연어 640만마리 방류 최첨단 기법으로 연어 회귀율과 생애주기 등 정밀 연구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3월 28일 ‘연어의 모천(母川)’으로 알려져 있는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서 어린 연어 640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작년 10~12월 중순께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키운 개체다.

방류된 연어는 북태평양과 베링해로 이동해 3~5년간 머물다가 성어가 되면 동해안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연어자원 방류사업을 추진해 자원 조성에 앞장서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방류사업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는 하천에서 연간 잡히는 물량이 95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자원량이 낮은 상태였지만 지속적인 방류사업으로 지난 3년간 매년 약 10만

마리 내외의 어미 연어가 잡힐 정도로 자원량이 크게 증가했다.

연어는 의약품, 화장품 등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세포재생물질은 조직재생주사제, 점안제, 필러 등의 원료로 이용되며, 연어를 활용한 가공 제품을 생산해 작년 한 해 동안 200억원이 넘는 판매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해수부는 연어 회귀율과 생애주기를 보다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해, 방류 대상 연어에 타 개체와 구별되는 표식을 부여하는 최첨단 기법을 적용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에 방류하는 640만 마리를 포함해 4월 2일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지자체 수산자원연구기관 등과 함께 연어가 산란하는 울산 태화강, 강릉 연곡천 등 전국 주요하천에 총 1071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할 예정이다.



방류용 어린연어



어린연어 방류 행사 모습(남대천)

## ‘가사도우미 서비스’로 어촌 가정생활 지원

### 어업인·어촌지역 취약가구 대상 첫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고령자 및 취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어촌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통계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32.5%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30% 이상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촌 가구 구성원 3분의 1이 고령자로 상당수 가구가 생계활동과 가정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촌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업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임산부와 출산 후 3개월 이내 여성 어업인 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다.

어업인이 아닌 단순 어촌 거주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가구와 독거노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가 해당된

다. 또한 별도로 어촌 읍면지역 경로당에도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선정한다. 임산부와 출산 후 3개월 이내 여성 어업인 가구를 우선지원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어업인 가구를 차순위 지원한다.

단순 어촌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가구 혹은 독거노인을 그 다음 순위로 지원하며 이후 장애인 가구·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조손가구·다문화가구·경로당 순이다. 가사도우미는 취사·세탁·청소·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설명,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 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수협이 선정한다.

### 제7회 김의 날 및 수출 5억불 달성 기념행사



해양수산부는 3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7회 김의 날 및 수출 5억불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

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김 수출 5억불 달성 기념 퍼포먼스를 가졌다.

### “어업인 피해 유발하는 해상풍력발전 중단하라” 전북지역 어업인 500여명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



전북지역 어업인 500여명은 3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군산, 부안, 고창, 김제 등 전북지역 어업인 500여명은 3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해상풍력설비가 설치되면 주변 해역에서는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어업

인들의 조업구역이 상당부분 축소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다. 해상풍력발전소는 제주에서 3개소가 가동 중이며 현재 공사중인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걸쳐 18개소가 건설 예정인 상태다.

### 해수부,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7개 권역에서 지자체 및 수출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수부가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16개 세부사업 정보를 업계에 안내해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 △물류·통관 지원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의 시행시기·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올해 해수부의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은 2014년 83억원에서 2017년 26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수출지원사업의 수혜 업체 수도 2014년 223개 업체에서 2017년 492개 업체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KMI,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개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1개 광역 시도 해양수산국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각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과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층)에서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별 해양수산 발전여건과 잠재력을 전망하고, 해양수산 분야가 지역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동체 탐방 / 서남 옹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마을어업 분야 최우수공동체 저력으로 자율관리어업 모델 조성’



김종운 옹도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옹도마을 입구에 있는 어촌체험마을 표식.



옹도공동체 회원들의 바지락 공동작업 모습.



지난해 마을어업 분야 최우수공동체 선정 후 기념촬영.

태안반도의 가로림만 안쪽에 위치한 옹도는 하루 두 번 간조 때 물길이 열려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섬마을이다. 밀물이 되면 마을과 이어진 작은 연육교가 물에 잠겨 자동차나 도보로 통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활에 제약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옹도는 마을 어업을 대표하는 공동체로 발돋움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답은 바로 자율관리어업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옹도는 2013년 55가구 120여명의 주민들이 공동체를 결성하면서 마을은 급속도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이전

에는 바지락, 굴, 낙지 등 바다에서 나는 것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였으며, 무계획적인 생산과 판매로 어장환경은 악화됐다. 사무실도, 자체 자금도 전무한 상황에서 마을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공동체 내 낙지통발어선이 산란기에도 조업함에 따라 자원이 크게 감소돼 갈등과 반목이 이어졌다. 3년간의 설득과 타협으로 6척의 낙지 통발어구를 전량 폐기 처분하면서 어장과 자원관리에 주민들의 의식이 한 차원 성숙됐다.

옹도 공동체 결성을 주도하며, 7년째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김종운(53)

위원장은 “자율관리어업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활동이며, 위원장은 동네를 바꿀 수도 있다”며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위원장과 회원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옹도는 공동체가 활성화된 지금도 한 달에 수차례 회원들과 회의를 가지며, 12명의 운영위원은 상시로 위원장과 모임을 갖고 사업계획과 자금집행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투명한 공동체 운영이 옹도를 전국 으뜸의 마을 공동체로 만든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옹도는 2015년 해양수산부의 어촌특화사업 공모에 충남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

회에서 마을어업 부문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돼 다시 한번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는 연로한 공동체 회원들까지 대거 응원단으로 참석해 공동체의 단합된 힘을 보여줬다.

앞으로 옹도는 바지락과 굴 등 주요 수산물 가공 상품화하고 관광 및 체험마을을 조성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10여년째 유지하고 있는 미래셋증권 등 1차 1촌 자매결연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 내 폐교된 초등학교를 재건축해 숙박시설로 개조함으로써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데 회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다.